

#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 가장자리 구성법 연구

이 주 영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A Study of Sewing Methods Used for the Hems of Men's Coat Excavated from the Tombs of Yeosan Song Clan

Joo-Young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투고일: 2009. 5. 27, 심사(수정)일: 2009. 10. 9, 게재확정일: 2009. 10. 26)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sew the hem of men's coat which were excavated from the Yeosan Song Clan's tombs that are thought to be formed between the late 15th and the late 16th centurie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ndan, or inside facing was used to prevent the hem from being worn or swollen or to make the hem properly arranged. It was generally used for single-layered and cotton-quilted coat for men. Deotdan was used mainly for men's coat having oblique cutting lines and jemuldan for those having straight cutting lines. In single-layered coat for men, the width of andan was widened a little as the times moved from the late 15th to the late 16th century, but in cotton-quilted ones, the width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2. Fixing the lining and the upper was used as a method to prevent the lining of men's coat from being pushed out or the hem of the clothes from being swollen, The method was generally used for double-layered, cotton and cotton-quilted coat for men. The double back-stitching was usually used for double-layered and cotton coat for men and the broad-stitching for cotton-quilted ones.

3. Among men's coat, those whose siding was partially opened were less spare in the lower end than those whose siding was wholly opened. For this reason, the former clothes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tip of the siding easily torn. To solve this problem, overhand knotting 1, overhand knotting 2 and lotus-flower knotting strings were used for men's coat whose siding was partially opened. Among the three types, lotus-flower knotting was most elaborate in form. For men's coat, overhand knotting became gradually replaced by lotus-flower knotting as the times moved from the late 15th to the late 16th century.

Key words: Yeosan Song clan's Tombs(여산송씨일가묘), Men's coat(남자 포), methods of sewing (구성법), inside facing(안단), lining and upper(안감과 겹감), slit(트임)

## I. 서언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와 관련하여 전보에서는 조형학적인 측면에서 부위별 형태와 변화 양상에 관하여 연구하였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구성학적인 측면에서 구성법과 변화 양상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004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에 위치한 여산송씨일가묘에서 宋效商, 宋喜從, 忠州朴氏, 順興安氏의 복식이 수습되었다. 포류 총 47점 중 남자 포는 37점인데, 그 종류로는 단령·직령·답호·도포형직령·철릭·중치막·액주름·과두가 있다. 포의 명칭과 관련하여 전보에서는 송효상과 송희종의 유물 중 6점에 대해 편의상 '옆자락이 없는 직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복식학계의 연구결과<sup>2)</sup>를 반영하여 5점은 '중치막', 1점은 '과두'로 명명하고자 한다.

구성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포는 여러 가지 부분 구성법이 체계적으로 조합됨으로써 완성되는 하나의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의 부분 구성법은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포는 다른 의복에 비하여 크기가 크므로 가장자리,<sup>3)</sup> 즉 겹섶가장자리선·안섶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를 잘 정돈하여 전체적으로 형태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가장자리에 사용되어 형태를 안정시키는 구성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를 고찰하면서 안단을 처리하는 방법, 안·겉감을 고정하는 방법, 트임 끝의 파열을 방지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법들은 홑·겹·숨·숨누비 등 구성양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포의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루엣을 아름답게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포의 가장자리 구성법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간과되어 왔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출토된 포류 총 47점 중 남자 포 37점을 선별하여, 첫째 포의 유

형별로 안단처리방법, 안·겉감고정방법, 트임파열방지방법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15C 후반과 16C 후반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구성법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구성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고찰에 의해 도출된 대표성을 띠는 구성법은 향후 15C 후반과 16C 후반의 포를 복원·재현하는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이 15C 후반과 16C 후반의 여산송씨 집안에서 사용되었던 구성법이라는 점에서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가지며, 각 포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구성법, 즉 단령·직령·답호·도포형직령의 무<sup>4)</sup> 주름잡기, 철릭의 치마 주름잡기 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가장자리 구성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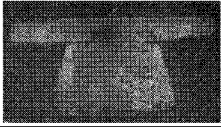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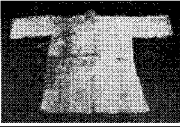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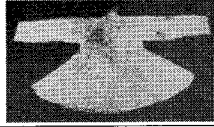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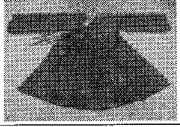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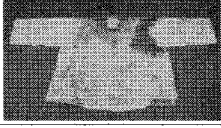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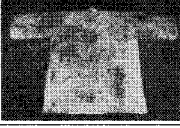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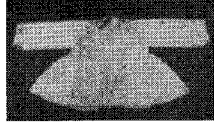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는 직령·단령·답호·도포형직령·철릭·중치막·액주름·과두이고, 사진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포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안단처리방법, 안·겉감고정방법, 트임파열방지방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안단처리방법은 포의 가장자리가 헤어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가장자리를 단정하게 정돈함으로써 옷맵시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안단을 대는 구성법을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안단의 종류를 '덧단'과 '제물단'으로 분류하였는데, 덧단은 별도의 천을 사용하여 안단을 대는 것이고, 제물단은 포의 가장자리에 제천을 남겨놓았다가 이를 안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안·겉감고정방법은 포의 안감이 겉으로 밀려나오거나 가장자리 부위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장자리부위에서 안·겉감을 고정하는 구성법을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안·겉감고정방법의 종류를 '2땀은당침법'과 '홑질법'으로 분류하였는데, 2땀은당침법은 가장자리에서 일정 정도 들어간 곳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은당침하

〈표 1〉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

의복명	15C 후반	16C 후반	의복명	15C 후반	16C 후반
	송효상 묘	송희종 묘		송효상 묘	송희종 묘
직령			칠릭		
단령			중치막	미출토	
담호		미출토	액주름		
도포형 직령			과두		미출토

는 것이고, 흠질법은 가장자리에서 일정 정도 들어간 곳에서 0.2-0.3cm 간격으로 흠질하는 것이다.

셋째, 트임과 열방지방법은 포의 옆트임이나 수구 트임 끝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임 끝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의 좌우에 매듭끈을 연결·고정하는 구성법을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트임과 열방지방법의 종류를 '웁매듭끈'과 '연봉매듭끈'으로 분류하였는데, 웁매듭끈은 그냥 끈을 한 번 묶음으로써 생긴 매듭이 달린 끈이고, 연봉매듭끈은 연봉매듭이 달린 끈이다.

### Ⅲ. 유형별 가장자리 구성법

#### 1. 직령

직령은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총 9점 수습되었다. 〈표 2〉는 직령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직령은 총 9점 중 홀이 5점, 겹이 2점, 숨이 2점이

며, 안단은 홀직령 5점에만 사용되었다(No. 1, 5, 6, 8, 9). 5점 모두 겹설가장자리선·안설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에 안단이 대어져 있으며, 덧단과 제물단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 (1) 덧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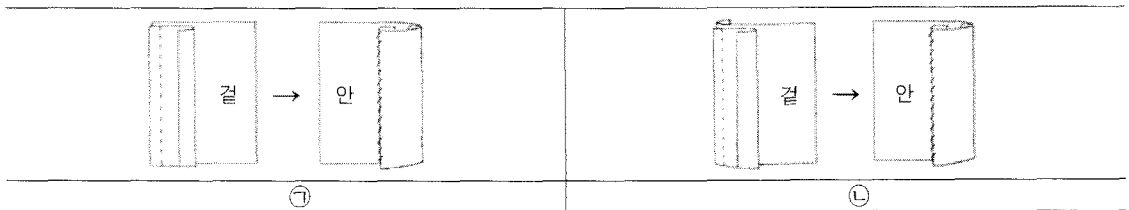
덧단은 겹설가장자리선에 주로 사용되었고, 덧단 나비는 송효상의 직령은 2.5cm, 송희종의 직령은 3-4cm인 것으로 보아 후대로 갈수록 다소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덧단의 제작과정을 보면, No. 5 명주 홀직령의 경우 겹설가장자리선 시점을 접지 않고, 그냥 겹설의 겹과 덧단의 겹을 마주대고 바느질하였다(그림 1)-①. 그런데 No. 1, 6, 8, 9 직령의 경우 겹설가장자리선 시점을 한번 접은 상태에서 덧단을 대었다. 즉 ① 겹설가장자리선 시점을 완성선에서 0.1-0.2cm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안쪽으로 접어 넘긴다. ② 겹설의 겹과 덧단의 겹을 마주 대고 겹설의 접은 선에서 0.1-0.2cm 정도 들어간 곳, 즉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이는 겹설가장자리선을 꼬집어박는 원리이다. ③ 덧단을 안쪽으로 넘긴 다음 감침질(0.1-0.2cm 간격)로

〈표 2〉 직령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cm)

추정착용시기		15C 후반			16C 후반					
착용자		송효상			송희취	송희종				
No		1	2	3	4	5	6	7	8	9
보고서		송효상	송효상	송효상	충주박씨	송희종	송희종	송희종	송희종	송희종
유물번호 <sup>5)</sup>		No.1 직령	No.2 직령	No.3 직령	No.1 직령	No.1 직령	No.2 직령	No.3 직령	No.4 직령	No.5 직령
구성양식		홀	겹	숨	숨	홀	홀	겹	홀	홀
안단 처리 방법	걸섶가장 자리선	덧단(2.5)	無	無	無	덧단(3.5)	덧단(3)	無	덧단(3)	덧단(4)
	안섶가장 자리선	제물단 (2.5)	無	無	無	제물단 (1.5)	제물단 (1.5)	無	제물단(2)	제물단(2)
	옆선	제물단 (2.5)	無	無	無	제물단 (3)	제물단 (3)	無	덧단(3)	제물단(4)
	도련	제물단 (2.5)	無	無	無	제물단 (3.5)	제물단 (3.5)	無	제물단(3)	제물단(4)
	수구	제물단 (2.5)	無	無	無	제물단 (1.5)	제물단(3)	無	덧단(3.5)	제물단(4)
안·걸감 고정방법		無	2땀온당침 법(걸섶· 안섶가장 자리선, 옆선,도련, 수구)	2땀온당침 법(걸섶· 안섶가장 자리선, 옆선,도련, 수구)	2땀온당침 법(걸섶· 안섶가장 자리선, 옆선,도련, 수구)	無	無	2땀온당침 법(걸섶· 안섶가장 자리선, 옆선,도련, 수구)	無	無
트임	유형	부분트임	부분트임	부분트임	부분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파열방지 방법	無	無	有(옆선)	有(옆선)	無	無	無	無	無



〈그림 1〉 홀직령의 덧단 제작과정

고정한다(그림 1)-㉔.

이와 같이 걸섶가장자리선에 덧단을 대는 이유는 걸섶가장자리선은 대부분 어순올이므로 늘어나기 쉬운데, 여기에 곧은올의 덧단을 땀으로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걸섶가장자리선 시접을 안으로 접어 시접이 두 겹인 상태로 해서 덧단을 달았는데(No. 1, 6, 8, 9), 이렇게 하면 꼬집어박기에 의해 솔기가 튼튼해져 늘어나는 것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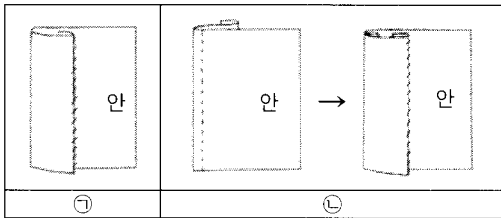
번 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제물단

제물단은 안섶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에 주로 사용되었고, 제물단 나비 역시 송효상의 직령은 2.5cm, 송희종의 직령은 3-4cm로서 덧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안섶가장자리선의 제물단 나비는 15C 후반에는 다른 부위의 치수와 동일하지만, 16C

후반에는 다른 부위의 치수가 3-3.5cm인 경우 1.5-2cm, 4cm인 경우 2cm로서 반 정도로 줄어 든다. 안섷가장 자리선·옆선·도련·수구에 제물단을 대는 이유는 이들 부위가 대부분 곧은올이므로 제천으로 안단을 대어도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물단의 제작과정을 보면,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 넘긴 다음 가장자리를 감침질(0.1-0.2 간격)로 고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그림 2)-㉠. 그런데 드물게 No. 5 직령의 뒤옆선과 같이 제물단을 완성선에서 한 번 꼬집어 박은 다음 접어 넘기기도 하였다. 즉 ㉠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겹쪽으로 접어 넘긴 다음 접은 선에서 0.1-0.2cm 정도 들어간 곳, 즉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이는 꼬집어 박기의 원리와 같다. ㉡ 제물단을 다시 안쪽으로 접어 넘긴 다음 가장자리를 감침질(0.1-0.2cm 간격)로 고정한다(그림 2)-㉡.



〈그림 2〉 홑직령의 제물단 제작과정

2) 안·겹감고정방법

안·겹감고정방법은 겹직령(No. 2, 7)과 솜직령(No. 3, 4)에만 사용되었고, 바느질법은 모두 2뿔은 당침법이다. No. 2, 7의 겹직령의 경우 겹섷·안섷·옆선·도련·수구의 가장자리에서 4cm 들어간 곳에 5cm 간격으로 겹감쪽에서 2뿔, 안감쪽에서 3뿔이 보이도록 2뿔은당침하였다. 그런데 No. 3, 4의 솜직령의 경우 4-4.5cm 들어간 곳에 6-8cm 간격으로 2뿔은 당침하였는데, 이는 솜 두께를 고려하여 바느질 간격을 느슨하게 조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트임파열방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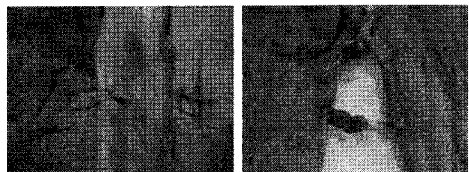
직령은 모두 옆이 트여 있는데, 옆트임은 부분적으로 트인 경우도 있고(No. 1, 2, 3, 4), 전체가 트인

경우도 있다(No. 5, 6, 7, 8, 9)<sup>6)</sup>. 트임파열방지방법은 옆이 일부 트여 있는 No. 3, 4의 직령에만 사용되었는데, 이는 옆트임의 양에 따른 활동시 아래자락의 여유와 관련된다. 즉 전체트임의 경우 아래자락에 여유가 많아 트임 끝이 찢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부분트임의 경우 전체트임에 비하여 여유가 부족하므로 트임 끝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열방지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No. 3, 4의 직령에는 천을 납작하게 접어 끈을 만들고, 이 끈을 그냥 한번 묶어 '웁매듭<sup>7)</sup>'을 만들어 옆트임 좌우에 연결·고정하였는데, 이를 편의상 '웁매듭끈'이라 칭하고자 한다(그림 3). 김영재는 이렇게 묶음을 하나 줄 경우 끈에 힘이 더해지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만듦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실용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sup>8)</sup> No. 3의 직령에는 옆트임 끝에서 1cm 내려온 곳에, No. 4의 직령에는 옆트임 끝에서 3cm 내려온 곳에 끈이 달려 있다.

No. 3의 직령에 사용된 끈은 나비가 0.5cm이고, 길이는 반과되어 1.5cm 정도 남아 있는데 1.5cm 끝에 웁매듭이 달려 있다. No. 4의 직령에도 나비 0.5cm, 길이 1cm 정도의 반과된 끈이 달려 있는데, 웁매듭은 확인할 수 없으나 No. 3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웁매듭끈은 이응혜(1547-1626) 출토복식 중 창의를 옆트임과 철리의 수구에서도 확인된다.<sup>9)</sup>

'웁매듭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나비 2cm, 길이 10cm 정도의 천을 준비한다. ㉡ 준비한 천을 나비 0.5cm가 되도록 접어 솔기부분을 감침질한 다음 가운데를 한 번 묶어 '웁매듭'을 만든다. ㉢ 웁매듭끈은 No. 3 직령의 경우 옷을 완성한 다음 겹감쪽에 놓고 2줄 온당침으로 달고, No. 4 직령의 경우 옷을 완성한 다음 안감과 겹감 사이에 끼워 놓고 겹감쪽에서 2줄 온당침으로 고정한다.



〈그림 3〉 직령의 옆트임파열방지방법 (웁매듭끈; No. 3, No. 4)

〈표 3〉 단령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정착용시기		15C 후반		16C 후반
착용자		송효상		송희종
No		1	2	3
보고서 유물번호		송효상 No.5 단령	송효상 No.6 단령	송희종 No.10 단령
구성양식		홀		홀
안단처리 방법	겉섧가장자리선	덧단(3.5-4)	덧단(4)	덧단(4.5)
	안섧가장자리선	제물단(2)	제물단(4)	제물단(2)
	옆선	제물단(3)	제물단(4)	덧단(4.5)
	도련	제물단(3)	제물단(4)	제물단(4)
	수구	제물단(3)	제물단(4)	덧단(5)
안·겉감고정방법		無	無	無
트임	유형	전체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파열방지방법	無	無	無

〈표 4〉 답호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정착용시기		15C 후반	
착용자		송효상	
No		1	2
보고서 유물번호		송효상 No.7 답호	송효상 No.8 답호
구성양식		숨	홀
안단처리방법	겉섧가장자리선	無	덧단(1,2)
	안섧가장자리선	無	제물단(1,2)
	옆선	無	제물단(1,3)
	도련	無	제물단(2)
	수구	無	제물단(1,5)
안·겉감고정방법		2맴은당침법(옆선, 도련, 수구)	
트임	유형	전체트임	전체트임
	파열방지방법	無	無

## 2. 단령

단령은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총 4점 수습되었는데, 1점은 고찰불가이다. 〈표 3〉은 단령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단령 3점은 모두 홀이고 안단이 사용되었는데, 안단처리방법은 직령과 동일하다. 덧단 나비는 송효상의 단령은 3.5-4cm, 송희종의 단령은 4.5cm이고, 제물단 나비는 송효상의 단령은 3-4cm, 송희종의 단령은 4cm인 것으로 보아 안단 나비 역시 직령과 마찬가지로

로 후대로 갈수록 다소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섧가장자리선에 댄 제물단의 나비는 다른 부위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No. 2), 직령에서와 같이 다른 부위의 치수가 3cm·4cm인 경우 2cm로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 안·겉감고정방법

고찰가능한 단령 3점은 모두 홀이므로 안·겉감고정방법을 논할 수 없다.

### 3) 트임파열방지방법

단령 3점은 모두 옆선 전체가 트여 있고 트임파열

방지처리가 없는데, 직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 3. 답호

답호는 송효상 묘에서만 2점 수습되었다. <표 4>는 답호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단령은 총 2점 중 홀이 1점, 숨이 1점이며, 안단은 홀답호에만 사용되었는데(No. 2) 안단처리방법은 직령·단령과 동일한 양상이다. 다만, 답호의 덧단과 제물단 나비가 직령·단령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좁은 것이 특징적이다. 즉 답호의 덧단 나비는 1.2cm 정도인데, 이는 송효상의 직령(No. 1)이 2.5cm, 단령(No. 1, 2)이 3.5-4cm인데 비하여 좁은 편이다. 제물단 나비 역시 1.2cm·1.3cm·1.5cm·2cm 등으로 직령(No. 1)이 2.5cm, 단령(No. 1, 2)이 3-4cm인데 비하여 좁은 편이다.

#### 2) 안·걸감고정방법

안·걸감고정방법은 숨답호(No. 1)에만 사용되었고, 2땀온당침법인데, 옆선·도련·수구의 가장자리에

는 사용되었고, 걸섵가장자리선·안섵가장자리선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옆선과 도련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3.5cm 들어간 곳에 5-6cm 간격으로 걸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2땀온당침하였고, 수구의 경우 5cm 들어간 곳에 8cm 간격으로 2땀온당침하였다.

#### 3) 트임파열방지방법

답호 2점은 모두 옆선 전체가 트여 있고 트임파열방지처리가 없는데, 직령·단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 4. 도포형직령

도포형직령은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총 3점 수습되었다. <표 5>는 도포형직령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도포형직령은 총 3점 중 홀이 2점, 겹이 1점이며, 안단은 홀도포형직령 2점에만 사용되었다(No. 1, 3). 안단처리방법은 거의 동일한데, 2점 모두 걸섵가장자리선·안섵가장자리선·무옆선·뒷자락옆선·도련·수구에 안단이 대어져 있다. 안단을 뒀 때는 덧단과 제물단이 함께 사용되었고, 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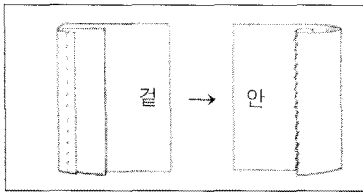
<표 5> 도포형직령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정착용시기		15C 후반	16C 후반	
착용자		송효상	송희중	
No		1	2	3
보고서 유물번호		송효상 No.9 도포형직령	송희중 No.11 도포형직령	송희중 No.12 도포형직령
구성양식		홀	겹	홀
안단 처리 방법	걸섵가장자리선	덧단(4)	無	덧단(3.5)
	안섵가장자리선	제물단(3.5)	無	제물단(2)
	무 옆선	식서이용	無	제물단(3.5)
	뒷자락 옆선	제물단(4)	無	덧단(3)
	도련	제물단(4)	無	제물단(3.5)
	수구	제물단(4)	無	제물단(3.5)
안·걸감 고정방법		無	2땀온당침법 (걸섵·안섵가장자리선, 옆선, 도련,수구)	無
트임	유형	전체트임	전체트임	전체트임
	파열방지방법	無	有(수구)	無

**(1) 덧단**

덧단은 겹섶가장자리선에 주로 사용되었다. 덧단 나비는 송효상의 경우 4cm, 송희종의 경우 3.5cm로서 서로 비슷하다. No. 1, 3 도포형직령의 덧단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4). ① 겹섶의 겹과 덧단의 겹이 마주 닿도록 놓되, 덧단 가장자리를 완성선에서 시접쪽으로 0.1-0.2cm 정도 나간 곳에 놓이도록 한다. 이때 겹섶과 덧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질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② 겹섶의 시접으로 덧단을 감싸고, 가장자리에서 0.1-0.2cm 들어간 곳, 즉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③ 덧단을 안쪽으로 넘긴 다음 감침질(0.1-0.2 간격)로 고정한다.



〈그림 4〉 출도포형직령의 덧단 제작과정

도포형직령의 덧단구성법은 겹섶부분의 시접을 꼬집어박기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직령·단령·답호의 방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직령·단령·답호의 경우 겹섶가장자리선 시접을 접은 상태에서 꼬집어박기 했으나, 도포형직령의 경우 겹섶가장자리선 시접으로 덧단 시접을 감싼 상태에서 꼬집어박기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제물단**

제물단은 안섶가장자리선·무옆선·도련·수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제물단 나비는 송효상의 경우 4cm, 송희종의 경우 3.5cm로서 서로 비슷하다. 다만, 안섶가장자리선에 댄 제물단은 다른 부위의 치수보다 약간 작는데, 4cm인 경우 3.5cm, 3.5cm인 경우 2cm로서 직령·단령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제물단의 제작과정을 보면, 제물단을 완성선에서 0.1-0.2cm 정도 꼬집어박기한 다음 안쪽으로 접어 넘겨 가장자리를 감침질(0.1-0.2 간격)로 고정하였는데, 〈그림 2〉㉔의 방법과 동일하다. 한편, 뒷자락옆선에

는 덧단과 제물단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No. 1 도포형직령은 뒷자락옆선이 곧은올이므로 제물단을 달았고, No. 3 도포형직령은 뒷자락옆선이 어순올이므로 곧은올의 덧단을 달아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2) 안·겹감고정방법**

안·겹감고정방법은 겹도포형직령(No. 2)에만 사용되었고, 2땀온당침법이다. 겹섶·무옆선·도련·수구에는 가장자리에서 4cm 들어간 곳에서 5cm 간격으로 겹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2땀온당침하였고, 안섶에는 6cm 간격으로, 뒷자락옆선에는 4cm 간격으로 2땀온당침하였다.

**3) 트임과열방지방법**

도포형직령은 모두 옆선 전체가 트여 있고 트임과 열방지처리가 없는데, 직령·단령·답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No. 2 도포형직령의 수구에 트임방지처리가 되어 있는데, 수구트임 끝에서 1.5cm 올라간 곳에 2cm 길이의 '옴매듭끈'이 달려 있다(그림 5). 도포형직령에 사용된 옴매듭끈의 경우, 매듭이 옴매듭이라는 점에서 직령에 사용된 방법(그림 3)과 유사하지만 천을 손끝으로 돌돌 말아 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끈부분은 후술할 중치막에 사용된 방법(그림 7)과 유사하다.



〈그림 5〉 도포형직령의 트임과열방지방법 (옴매듭끈: No. 2)

'옴매듭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나비 1.5cm, 길이 10cm 정도의 천을 준비한다. ② 천의 양쪽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돌 말아 나비가 각각 0.15cm(전체 0.3cm) 되도록 한 다음 돌돌 말은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끈을 한 번 묶어 '옴매듭'을 만든다. ③ '옴매듭끈'은 옷을 완성한 다음 안감과 겹감 사이에 끼워 넣고 겹감쪽에서 2줄온당침으로 고정한다.



〈표 6〉 철릭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경착용시기		15C 후반				16C 후반			
착용자		송효상				송희취	송희중		
No		1	2	3	4	5	6	7	8
보고서		송효상	송효상	송효상	송효상	충주박씨	송희중	송희중	송희중
유물번호		No.10 철릭	No.11 철릭	No.12 철릭	No.13 철릭	No.3 철릭	No.13 철릭	No.14 철릭	No.15 철릭
구성양식		숨누비	숨누비	홀	홀	숨누비	겹	겹	홀
안단 처리 방법	겉섶가장 자리선	無	無	제물단(2)	제물단(1.5)	無	無	無	제물단(3)
	안섶가장 자리선	無	無	덧단(1)	제물단(1)	無	無	無	덧단(2)
	도련	無	無	제물단(4)	제물단(3)	無	無	無	제물단(2.5)
	수구	無	無	제물단(4)	덧단(4)	無	無	無	제물단(3)
안·겉감 고정방법		홈질법 (겉섶·안 섶가장자리 선, 도련, 수구)	홈질법 (겉섶·안 섶가장자리 선, 도련, 수구)	無	無	홈질법 (겉섶·안 섶가장자리 선, 도련, 수구)	2땀온당침 법(겉섶· 안섶가장자 리선, 도련, 수구)	2땀온당침 법(겉섶· 안섶가장자 리선, 도련, 수구)	無
트입	유형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파열방지 방법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 5. 철릭

철릭은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총 8점 수습되었다. 〈표 6〉은 철릭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철릭은 총 8점 중 홀이 3점, 겹이 2점, 숨누비가 3점이며, 안단은 홀철릭 3점에만 사용되었다(No. 3, 4, 8). 안단처리방법은 거의 동일한데, 3점 모두 의·상의 겉섶가장자리선과 안섶가장자리선, 도련, 수구에 안단이 대어져 있다. 안단 나비를 보면, 송효상의 경우(No. 3, 4) 의·상의 겉섶가장자리선과 안섶가장자리선에는 1-1.5cm 정도이고, 도련과 수구에는 3-4cm 정도인데, 송희중의 경우(No. 8) 모든 가장자리에 2-3cm 정도로서 차이를 보인다. 안단으로 덧단과 제물단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주로 제물단이 사용되었다.

### (1) 덧단

덧단은 No. 4 철릭의 수구, No. 3과 No. 8 철릭

의 안섶가장자리선에만 사용되었다. No. 4 철릭의 수구와 No. 8 철릭의 안섶가장자리선에는 그냥 덧단을 대고 감침질하였으나, No. 3 철릭 의의 안섶가장자리선에는 안섶시접을 접은 다음 덧단을 대고 감침질하였는데, No. 3의 덧단 제작과정은 직령·단령·답호와 동일하다.

### (2) 제물단

덧단이 사용된 부위 외에는 모두 제물단이 사용되었다. 제물단의 제작과정을 보면, 주로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 넘긴 다음 가장자리를 감침질(0.1-0.2 간격)로 고정하였으나, 제물단을 완성선에서 0.1-0.2cm 정도 꼬집어박기한 다음 안쪽으로 접어 넘겨 가장자리를 감침질로 고정하기도 하였다(No. 3 철릭 의의 겉섶가장자리선, No. 4 철릭 의의 겉섶가장자리선과 안섶가장자리선).

### 2) 안·겉감고정방법

안·겉감고정방법은 겹철릭(No. 6, 7)과 숨누비철릭(No. 1, 2, 5)에만 사용되었고, 겹철릭에는 2땀온당

침법, 솜누비철릭에는 홉질법이 사용되었다. 겹철릭의 경우 겹섷·안섷·도련·수구의 가장자리에서 4-5cm 들어간 곳에 짧게는 4cm, 길게는 6-7cm 간격으로 겹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2땀 온당침하였다(No. 6, 7). 솜누비철릭의 경우 겹섷·안섷·도련·수구의 가장자리에서 0.5-0.6cm 들어간 곳에 0.2-0.3cm 간격으로 홉질하였다(No. 1, 2, 5).

### 3) 트임과 열방지방법

철릭에는 트임과 열방지처리가 없다. 이는 전술한 직령·단령·답호·도포형직령 유물 중 옆선 전체가 트인 경우 옆트임과 열방지처리가 없는 것과 다른 이유로 설명된다. 즉 이들 포들은 옆선 전체가 트여 아래자락에 여유가 확보되었으나, 철릭은 10-14폭으로 만든 풍성한 치마로 인해 아래자락에 여유가 확보되었으므로 굳이 옆트임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 6. 중치막

중치막은 송희종의 묘에서 총 5점 수습되었다. <표 7>은 중치막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중치막은 총 5점 중 겹이 2점, 솜누비가 3점이며, 안단은 솜누비중치막 3점에만 사용되었다(No. 1, 3, 4). 안단은 No. 1의 중치막의 안섷가장자리선에 제물단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덧단이 사용되었고, 안단을 대는 부위와 제작과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 (1) 덧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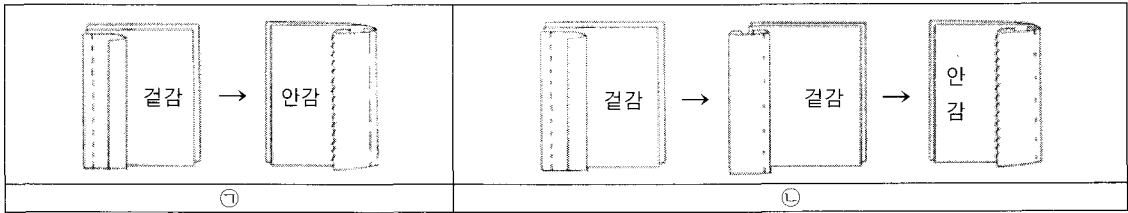
덧단은 No. 1 중치막의 도련, No. 3 중치막의 안섷가장자리선과 도련, No. 4 중치막의 겹섷가장자리선·안섷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에 사용되었다. 덧단 나비는 송희종의 중치막에서만 고찰할 수 있으며, 1.3-1.5cm 정도이다.

덧단의 제작과정은 No. 1, 3 중치막과 No. 4 중치막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No. 1, 3 중치막의 덧단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안섷가장자리선과 도련의 겹에 덧단의 겹을 마주대고 굵게 홉질한 다음 덧단을 안감쪽으로 접어 넘긴다. ② 안섷가장자리선과 도련의 가장자리 끝에서 0.2cm 들어간 곳에서 겹으로 1땀이 보이도록 온당침(0.7-1cm 간격) 한다. 이는 안감이 겹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③

<표 7> 중치막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정착용시기		16C 후반				
착용자		송희종				
No		1	2	3	4	5
보고서 유물번호		송희종 No.6 중치막	송희종 No.7 중치막	송희종 No.8 중치막	송희종 No.9 중치막	순흥안씨 No.1 중치막
구성양식		솜누비	겹	솜누비	솜누비	겹
안단 처리 방법	겹섷가장자리선	無	無	無	덧단(1.3)	無
	안섷가장자리선	제물단(1.5)	無	덧단(1.5)	덧단(1.3)	無
	옆선	無	無	無	덧단(1.3)	無
	도련	덧단(1.5)	無	덧단(1.5)	덧단(1.3)	無
수구		無	無	無	덧단(1.3)	덧단(3.5)
안·겹감 고정방법		홉질법 (겹섷가장자리선, 옆선,수구)	2땀온당침법 (겹섷·안섷가장 자리선,옆선,도련, 수구)	홉질법 (겹섷가장자리선, 옆선,수구)	無	2땀온당침법 (겹섷·안섷가장 자리선,옆선,도련, 수구)
트임	유형	부분트임	부분트임	부분트임	부분트임	부분트임
	과열방지방법	無	無	無	有(옆선,수구)	有(옆선)



〈그림 6〉 솜누비중치막의 덧단 제작과정

안감쪽에서 덧단을 감침질(0.4 간격)로 고정한다. 이 방법은 겉에서는 온당침자국 1뿔만 보이고, 안에서는 ②의 과정에서 생긴 0.7-1cm 정도의 실자국과 ③의 과정에서 생긴 감침질자국이 보인다(그림 6)-①.

다음으로, No. 4 중치막의 덧단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덧단을 댈 부위(겉섵가장자리선·안섵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대고 곱게 흠질한 다음 덧단을 시접쪽으로 넘긴다. ② 시접과 덧단만 잡고, 덧단의 가장자리에서 0.3cm 들어간 곳에서 겉으로 1뿔이 보이도록 흠질(0.3cm 간격) 한다. 이는 안감이 겉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③ 덧단을 안감쪽으로 접어 넘긴 다음 감침질(0.7cm 간격)로 고정한다. 이 방법은 겉에서는 바느질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②의 과정에서 생긴 흠질자국과 ③의 과정에서 생긴 감침질자국이 보인다(그림 6)-②.

중치막의 덧단 제작과정 중 안감이 겉으로 밀려나오지 않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No. 1, 3 중치막의 경우 바느질 자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 No. 4 중치막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2) 제물단

제물단은 No. 1 중치막의 안섵가장자리선에만 사용되었다. 제작과정은 제물단을 완성선에서 0.1-0.2cm 정도 꼬집어박기한 다음 안감쪽으로 접어 넘겨 가장자리를 감침질(0.7 간격)로 고정하였다. 제물단의 나비는 1.5cm이다.

## 2) 안·겉감고정방법

안·겉감고정방법은 중치막 유물 5점 모두에 사용

되었다. 바느질법은 2뿔온당침법과 흠질법이 사용되었는데, 구성양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먼저, 2뿔온당침법은 No. 2, 5의 경중치막에 사용되었다. No. 2, 5의 중치막 모두 겉섵·안섵·옆선·도련·수구의 가장자리에서 4cm 들어간 곳에 고정상침하였는데, No. 2의 경우 4.5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3뿔, 안감쪽에서 2뿔이 보이도록 상침하였고, No. 5의 경우 6-6.5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뿔, 안감쪽에서 3뿔이 보이도록 상침하였다. 안·겉감을 고정할 때 바느질 자국은 대개 겉감쪽에서 2뿔, 안감쪽에서 3뿔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No. 2의 중치막은 여산송씨 일가의 포 중 유일하게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흠질법은 No. 1, 3의 솜누비중치막에 사용되었다. 흠질법은 솜누비중치막의 경우 안단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되지 않고, 안단이 없는 부위에만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즉 No. 1, 3의 경우 안단이 있는 안섵가장자리선과 도련에는 흠질이 없고, 안단이 없는 겉섵가장자리선·옆선·수구에는 가장자리에서 0.6-0.7cm 들어간 곳에서 0.2-0.3cm 간격으로 곱게 흠질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No. 4 중치막의 경우 솜누비라 하더라도 모든 가장자리에 안단이 대어져 있으므로 흠질법에 의한 안·겉감고정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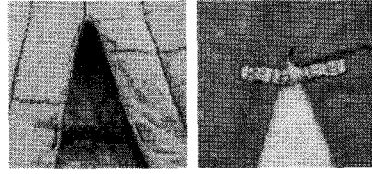
## 3) 트임파열방지방법

옆트임은 중치막 5점에 모두 있는데, 트임 양은 전체 옆길이의 ⅓ 정도이거나 이를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부분트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트임파열방지방법은 5점 중 2점에만 사용되었다(No. 4, 5).

No. 4, 5의 중치막에는 천을 돌돌말아 만든 끈으로 연봉매듭을 엮어 이것을 옆트임 또는 수구트임 좌우에 연결·고정하였는데, 편의상 '연봉매듭끈'이라 칭하고자 한다(그림 7).

No. 4의 중치막에는 옆트임 끝에서 5cm 내려간 곳에 5cm 길이의 연봉매듭끈이, 수구트임 끝에서 2cm 올라간 곳에 4cm 길이의 연봉매듭끈이 안감쪽에 달려 있다. No. 5의 중치막에는 옆트임 끝에서 1cm 내려간 곳에 4cm 길이의 연봉매듭끈이 겉감쪽에 달려 있고, 수구에는 없다. 연봉매듭끈은 출토복식 중 심수륜(1534-1582)의 주의의 옆트임<sup>10)</sup>과 김화(1572-1633)의 도포·창의·중치막의 옆트임에서도 볼 수 있으나 끈부분의 구성법이 약간 다르다.<sup>11)</sup>

'연봉매듭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나비 1.5cm, 길이 15-20cm 정도의 천을 준비한다. ② 천의 양쪽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돌 말아 나비가 각각 0.15cm(전체 0.3cm) 되도록 한 다음 돌돌 말은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러한 끈을 2개 만들어 끈 2개를 나란히 잡고 끈의 중앙에서 연봉매듭을 엮는다. ③ 연봉매듭끈은 옷을 완성한 다음 No. 4 중치막의 경우 안감쪽에 놓고, No. 5 중치막의 경우 겉감쪽에 놓고 온당침으로 단다.



〈그림 7〉 중치막의 옆트임파열방지방법  
(연봉매듭끈: No. 4, No. 5)

## 7. 액주름

액주름은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총 5점 수습되었다. 〈표 8〉은 액주름의 가장자리 구성법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단처리방법

액주름은 총 5점 중 겹이 1점, 솜이 2점, 솜누비가 2점이며, 안단은 솜누비액주름 2점에만 사용되었다(No. 4, 5). 모두 덧단만 사용되었고 덧단 나비는 1.5cm이다. 액주름의 덧단 제작과정은 중치막과 동일하다. 즉 No. 4 액주름의 경우 덧단이 겉섶가장자리선·옆선·도련에만 대어져 있고 제작과정은 No. 1, 3 중치막과 동일하며, No. 5 액주름의 경우 덧단이 안섶가장자리선·도련에만 대어져 있고 제작과정은

〈표 8〉 액주름의 가장자리 구성법

(단위: cm)

추정착용시기		15C 후반			16C 후반	
착용자		송효상			송희최	송희중
No		1	2	3	4	5
보고서 유물번호		송효상 No.14 액주름	송효상 No.15 액주름	송효상 No.16 액주름	송주박씨 No.4 액주름	송희중 No.16 액주름
구성양식		겹	솜	솜	솜누비	솜누비
안단 처리 방법	겉섶가장자리선	無	無	無	덧단(1.5)	無
	안섶가장자리선	無	無	無	無	덧단(1.5)
	옆선	無	無	無	덧단(1.5)	無
	도련	無	無	無	덧단(1.5)	덧단(1.5)
	수구	無	無	無	無	無
안·겉감 고정방법		흠질법 (겉섶·안섶가장 자리선,도련,수구)	2땀온당침법 (겉섶·안섶가장 자리선,도련)	2땀온당침법 (겉섶·안섶가장 자리선,도련)	흠질법 (수구)	흠질법 (겉섶가장자리선, 수구)
트 임	유형	無	無	無	부분트임	無
	파열방지방법	無	無	無	有(옆선)	無

No. 4 중치막과 동일하다.

### 2) 안·겉감고정방법

안·겉감고정방법은 5점의 액주름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2땀온당침법과 홈질법이 사용되었는데, 구성양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먼저, 2땀온당침법은 No. 2, 3 솜액주름에 사용되었는데, No. 2의 경우 겉섷·안섷·도련의 가장자리에서 4-5cm 들어간 곳에 6-7cm 간격으로, No. 3의 경우 3-3.5cm 들어간 곳에 8-10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2땀온당침하였다. 한편, 수구에는 가장자리에서 0.7-0.8cm 들어간 곳에 곱게 홈질하였다.

다음으로, 홈질법은 No. 1, 4, 5의 겹·솜누비 액주름에 사용되었다. No. 1 겹액주름의 경우 겉섷·안섷·도련·수구 등 모든 가장자리에서 0.4cm 들어간 곳에 0.4cm 간격으로 홈질하였으나, No. 4, 5 솜누비 액주름의 경우 No. 4에는 수구에만, No. 5에는 겉섷가장자리선과 수구에만 각각 0.6cm·0.8cm 들어간 곳에 곱게 홈질하였다.

안·겉감고정방법은 안단이 없는 가장자리에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술한 중치막과 동일한 양상이다. 즉 안·겉감고정방법은 겹액주름의 경우 모든 가장자리에 안단이 없으므로 모든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반면, 솜누비액주름의 경우 안단이 없는 가장자리에만 사용되었다.

### 3) 트임파열방지방법

액주름에는 옆트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송희최의 액주름은 옆선의 일부가 트여있고, 트임끝이 찢어지지 않도록 트임파열방지방법도 사용되었다. 즉 트임 끝에서 2.5cm 내려간 곳에 '웁매듭끈'이 달려 있는데, 안감쪽에서 5cm, 겉감쪽에서 3.5cm 가 보인다(그림 8). 웁매듭끈의 제작과정은 도포형직령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매듭끈을 달 때 도포형직령의 경우 옷을 완성한 다음 안감과 겉감 사이에 끼워 넣고 겉감쪽에서 2줄 온당침으로 고정하였으나, 액주름의 경우 옷을 완성한 다음 안감쪽에 놓고 2줄 온당침으로 달았다.



〈그림 8〉 액주름의 옆트임파열방지방법  
(웁매듭끈: No. 4)

## 8. 과두

과두는 송효상 묘에서 1점 수습되었는데, 안단처리방법·안겉감고정방법·트임파열방지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IV. 가장자리 구성법의 특성

### 1. 안단처리방법

① 안단은 홀·솜누비로 된 포에만 사용되었다.

안단은 남자 포 총 37점 중 19점에 사용되었고, 19점 중 홀이 14점, 솜누비가 5점이다. 안단은 홀 유물 14점 중 14점에 모두 사용되었고(직령 5점·단령 3점·답호 1점·도포형직령 2점·철릭 3점), 솜누비 유물 8점 중 5점에 사용되었다(중치막 3점·액주름 2점). 따라서 여산송씨 일가에서는 안단을 겹·솜으로 된 포에는 사용하지 않고, 홀·솜누비로 된 포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안단은 덧단과 제물단이 사용되었는데, 구성양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홀의 경우, 덧단은 겉섷가장자리선과 같은 어스울에, 제물단은 안섷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와 같은 곧은울에 사용되었다. 즉 겉섷가장자리선은 주로 어스울인데, 여기에 곧은울의 덧단을 땀으로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고, 더욱이 겉섷가장자리선 시점을 2겹인 상태로 접어서 덧단을 땀으로써 솔기를 튼튼하게 하여 겉섷가장자리선이 늘어나는 것을 한번 더 방지하였는데, 이는 꼬집어박기의 원리와 같다. 안섷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는 대부분 곧은울이어서 늘어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제물단, 즉 제천으로 안단을 대었다. 솜누비의 경우, 중치막 1점(No. 1)을 제외하고 모두 덧단이 사용되었다.

③ 안단의 나비는 구성양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고, 포의 외형적 크기에 비례하였다. 홀의 경우, 안단 나비는 15C 후반에는 1.2-4cm 정도이고, 16C 후반에는 3-5cm 정도인 것으로 보아 후대로 갈수록 다소 넓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직령·단령·답호·도포형직령과 같이 외형이 큰 포에서 두드러졌다. 솜누비의 경우, 안단나비는 15C 후반과 16C 후반에 모두 1.3-1.5cm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치막·액주름과 같이 외형이 작은 포에서 두드러졌다. 즉 외형이 큰 포는 주로 홀으로 만들어졌고 안단 나비도 큰 반면, 외형이 작은 포는 주로 솜누비로 만들어졌고 안단 나비 역시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안설가장자리선에 댈 제물단의 나비는 15C 후반에는 다른 부위의 치수와 동일하지만, 16C 후반에는 다른 부위의 치수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특

징적이다.

④ 구성양식에 따른 덧단과 제물단의 제작과정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홀으로 된 포에 덧단을 댈 경우 '방법2'와 '방법3'이 15C 후반과 16C 후반에 모두 사용되었고, 이 중 '방법2'가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방법면에서 '방법2'가 좀 더 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솜누비로 된 포에 덧단을 댈 경우 '방법1'에서 '방법2'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그리고 바느질 자국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미적인 면에서 '방법2'가 더 선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홀으로 된 포에 제물단을 댈 때는 15C 후반과 16C 후반에 모두 '방법 1'이 많이 사용되었고, 부위에 따라 '방법2'가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9>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 안단처리방법

구성양식	안단종류	제작과정	도식화	사용례	사용시기	
홀 (14점)	덧단	방법1 (1점)	겉선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 덧단을 안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1-㉑>	직령(No.5)	16C 후반
		방법2 (11점)	겉설가장자리선 시접을 안쪽으로 접는다 → 겉선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 덧단을 안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1-㉒>	직령, 단령, 답호, 철릭	15C 후반 16C 후반
		방법3 (2점)	겉선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 대고 → 겉설가장자리선 시접으로 덧단 시접을 감싼 후 완성선에서 반당침한다 → 덧단을 안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4>	도포형직령	
	제물단	방법1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안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2-㉑>	직령, 단령, 답호, 도포형직령, 철릭	15C 후반 16C 후반
		방법2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겉쪽으로 넘긴 후 완성선에서 꼬집어박기 한다 → 제물단을 다시 안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2-㉒>		
	솜누비 (5점)	덧단	방법1 (3점)	덧단을 댈 부위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 대고 홈질한다 → 덧단을 안감쪽으로 완전히 넘긴 후 가장자리에서 0.2cm 들어간 곳에서 겹으로 1뿤이 보이도록 온당침(0.7-1cm 간격)한다 → 안감쪽에서 덧단을 감침질한다.	<그림 6-㉑>	중치막(No.1,3), 액주름(No.4)
방법2 (2점)			덧단을 댈 부위의 겉과 덧단의 겉을 마주 대고 홈질한다 → 덧단을 시접쪽으로 젖힌 후 시접과 덧단만 잡고 덧단의 가장자리에서 0.3cm 들어간 곳에서 겹으로 1뿤이 보이도록 온당침(0.7-1cm 간격)한다 → 덧단을 안감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6-㉒>	중치막(No.4), 액주름(No.5)	16C 후반
제물단		제물단을 완성선을 따라 겉감쪽으로 넘긴 후 완성선에서 꼬집어박기 한다 → 제물단을 다시 안감쪽으로 넘긴 후 감침질한다.	<그림 2-㉓>	중치막(No.1)	-	

## 2. 안·겉감고정방법

① 안·겉감고정방법은 안감이 있는 겹·숨·숨누비로 된 포에는 대부분 사용되었다.

안·겉감고정방법은 남자 포 총 37점 중 20점에 사용되었고, 20점 중 겹이 8점, 숨이 5점, 숨누비가 7점이다. 즉 안·겉감고정방법은 겹 유물 8점 중 8점에 모두 사용되었고(직령 2점·중치막 2점·도포형 직령 1점·철릭 2점·액주름 1점), 숨 유물 6점 중 5점에 사용되었으며(직령 2점·답호 1점·액주름 2점), 숨누비 유물 8점 중 7점에 사용되었다(중치막 2점·철릭 3점·액주름 2점). 따라서 여산송씨 일가에서는 안·겉감고정방법을 홉으로 된 포를 제외하고 안감이 있는 겹·숨·숨누비로 된 포에는 대부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안·겉감고정방법은 2땀온당침법과 홉질법이 사용되었는데, 구성양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고, 사용부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2땀온당침법은 겹·숨으로 된 포에 주로 사용되었고, 사용부위는 겉섵가장자리선·안섵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 등 모든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홉질법은 겹액주름 1점(No. 1)을 제외하고 대부분 숨누비로 된 포에 사용되었고, 사용부위는 철릭과 같이 겉섵가장자리선·안섵가장자리선·도련·수구 등 모든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중치막·액주름과 같이 겉섵가장자리선·옆선·수구 등 일부 가장자리에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홉질법이 일부 가장자리에만 사용된 경우는 안단의 사용여부와 관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안단이 안섵가장자리선과 도련에만 사용

된 경우 나머지 가장자리인 겉섵가장자리선·옆선·수구에는 안·겉감고정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포의 가장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구성법이 병용된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은 구성 원칙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구성양식에 따른 2땀온당침법과 홉질법의 제작과정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안·겉감고정방법과 바느질 간격은 시기별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2땀온당침법의 경우 가장자리에서 3-5cm 들어온 곳에서 짧게는 4-5cm, 길게는 8-10cm 간격으로 바느질하였다. 다만, 숨으로 된 포가 겹으로 된 포보다 바느질 간격이 느슨한데, 이는 숨의 두께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홉질법의 경우 주로 숨누비로 된 포에 사용되었고, 가장자리에서 0.6-0.7cm 들어온 곳에서 0.2-0.3cm 간격으로 곱게 바느질하였다.

## 3. 트임파열방지방법

① 옆트임파열방지방법은 옆선 전체가 트인 포에는 사용되지 않고, 옆선의 일부가 트인 포에만 사용되었다.

남자 포 총 37점 중 옆선의 일부가 트여 있는 포는 10점이고, 10점 중 5점에 트임파열방지방법이 사용되었다. 즉 부분트임이 있는 포는 직령·중치막·액주름 등이고, 직령은 부분트임 유물 4점 중 2점에, 중치막은 부분트임 유물 5점 중 2점에, 액주름은 부분트임 유물 1점 중 1점에 옆트임파열방지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활동시 아랫자락의 여유와 관련되는

<표 10>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 안·겉감고정방법

구성양식	안·겉감 고정방법	제작과정	사용례	사용시기
겹 (8점)	2땀온당침법	가장자리에서 4-4.5cm 들어간 곳에서 4-5cm 또는 6-7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온당침한다.	직령,도포형직령, 철릭,중치막	15C 후반 16C 후반
숨 (5점)	2땀온당침법	가장자리에서 3-5cm 들어간 곳에서 5-7cm 또는 8-10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온당침한다.	직령,답호,액주름	
숨누비 (7점)	홉질법	가장자리에서 0.6-0.7cm 들어간 곳에서 0.2-0.3cm 간격으로 곱게 홉질한다.	철릭,중치막,액주름	

데, 철릭·액주름과 같이 치마와 거드랑이에 주름을 잡아 아래자락이 풍성한 포, 또는 옆선 전체가 트인 포는 아래자락에 여유가 많아 트임 끝이 찢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옆선의 일부가 트인 포는 아래자락에 여유가 부족하여 트임 끝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임과열방지방법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구트임과열방지방법은 남자 포 총 37점 중 중치막(No. 4)과 도포형직령(No. 2) 2점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② 트임과열방지방법에는 옹매듭끈과 연봉매듭끈이 사용되었다. 매듭과 끈의 제작방법에 따라 옹매듭끈1·옹매듭끈2·연봉매듭끈 등으로 분류된다. 옹매듭끈1은 '납작끈+옹매듭양식'으로 나비가 0.5cm 되도록 납작하게 접은 끈으로 옹매듭을 만든 것이고, 옹매듭끈2는 '말이끈+옹매듭양식'으로 나비가 0.3cm 정도 되도록 천을 손끝으로 돌돌 말은 끈 1개로 옹매듭을 만든 것이고, 연봉매듭끈은 '말이끈+연봉매듭양식'으로 나비가 0.3cm 정도 되도록 천을 손끝으로 돌돌 말은 끈 2개로 연봉매듭을 만든 것이다.

③ 트임과열방지방법의 제작과정과 특성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옹매듭끈1'은




15C 후반에, '옹매듭끈2'는 15C 후반과 16C 후반에, '연봉매듭끈'은 16C 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기로 갈수록 바느질이 정교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이상으로 여산송씨일가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 37점을 대상으로 가장자리에 사용된 구성법을 안단처리방법, 안·겉감고정방법, 트임과열방지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단은 포의 가장자리가 헤어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가장자리를 단정하게 정돈함으로써 옷맵시를 살리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안단은 홀·숨누비로 된 포에 사용되었고, 안단으로 덧단과 제물단이 사용되었다. 덧단은 별도의 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겉섹가장자리선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포의 겉섹가장자리선은 대부분 어순율로 되어 있어 늘어나기 쉬운 데 여기에 곧은율의 덧단을 땀으로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이다. 제물단은 제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 11>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 트임과열방지방법

트임과열방지방법	제작과정	사진	사용례	사용시기
옹매듭끈1 (2점)	납작끈+옹매듭 나비 2cm인 천을 0.5cm가 되도록 접어 납작한 끈(납작끈)을 만든다 → 끈을 한 번 묶어 '옹매듭끈'을 만든다 → 옷을 완성한 다음 옹매듭끈을 겉감쪽에 놓고 달거나, 안감과 겉감 사이에 끼워 넣고 겉감쪽에서 온당침으로 단다.		직령(No.2.4)의 옆트임	15C 후반
옹매듭끈2 (2점)	말이끈+옹매듭 천의 양쪽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돌 말아 전체 나비가 0.3cm인 끈(말이끈)을 만든다 → 끈을 한 번 묶어 '옹매듭끈'을 만든다 → 옷을 완성한 다음 옹매듭끈을 안감쪽에 놓고 달거나, 안감과 겉감 사이에 끼워 넣고 겉감쪽에서 온당침으로 단다.		액주름(No.4)의 옆트임 도포형직령(No.2)의 수구	15C 후반 16C 후반
연봉매듭끈 (3점)	말이끈+연봉매듭 천의 양쪽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돌 말아 전체 나비가 0.3cm인 끈(말이끈)을 만든다 → 이러한 끈을 2개 만들어 끈 2개를 잡고 연봉매듭을 만든다 → 옷을 완성한 다음 '연봉매듭끈'을 안감쪽 또는 겉감쪽에 놓고 온당침으로 단다.		중치막(No.4.5)의 옆트임, 중치막(No.4)의 수구	16C 후반



로, 안설파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 등과 같이 곧은올로 되어 있어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부위에 주로 사용되었다. 솔기를 튼튼하게 하여 가장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덧단을 댈 부위의 시접을 한번 접어 두 겹인 상태에서 덧단을 달기도 하고, 제물단을 접기 전에 체천을 한번 꼬집어 박기도 하였다. 외형이 큰 포는 주로 홀로 만들어졌고 안단의 나비도 큰 반면, 외형이 작은 포는 주로 솜누비로 만들어졌고 안단의 나비 역시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여산송씨 유물 중 안단의 나비는 15C 후반에서 16C 후반으로 갈수록 홀의 경우 다소 넓어졌으나, 솜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2. 안·겉감고정방법은 포의 안감이 겉으로 밀려 나오거나 가장자리 부위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포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안·겉감고정방법은 겹·솜·솜누비로 된 포에 주로 사용되었고, 바느질법으로 2땀온당침법과 홈질법이 사용되었다. 2땀온당침법은 겹·솜으로 된 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보통 가장자리에서 3-5cm 들어간 곳에 짧게는 4-5cm, 길게는 8-10cm 간격으로 겉감쪽에서 2땀, 안감쪽에서 3땀이 보이도록 온당침하는 것이다. 홈질법은 솜누비로 된 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보통 가장자리에서 0.6-0.7cm 들어간 곳에 0.2-0.3cm 간격으로 곱게 홈질하는 것이다. 특히 솜누비로 된 포의 경우 가장자리에 안단처리방법과 안·겉감고정방법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안단을 대지 않은 부위에만 안·겉감고정상침을 하여 가장자리가 안정되도록 하였다.

3. 옆선의 일부가 트인 포는 옆선 전체가 트인 포에 비하여 아래 자락에 여유가 부족하므로 트임 끝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임과열방지방법은 옆선 전체가 트인 포에는 사용되지 않고, 옆선의 일부가 트인 포에 사용되었는데, 방법으로 움매듭끈1·움매듭끈2·연봉매듭끈이 사용되었다. 움매듭끈1은 나비가 0.5cm 되도록 납작하게 접은 끈으로 움매듭을 만든 것이고, 움매듭끈2는 나비가 0.3cm 되도록 손끝으로 천을 양쪽에서 돌돌 말은 끈 1개로 움매듭을 만든 것이며, 연봉매듭끈은 나비가 0.3cm 되도록 손끝으로 천을 양쪽에서 돌돌 말은 끈 2개로 연봉매듭을 엮

은 것이다. 여산송씨 유물 중 움매듭끈1은 15C 후반에, 움매듭끈2는 15C 후반과 16C 후반에, 연봉매듭끈은 16C 후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기로 갈수록 기법이 정교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부분적이거나 15C 후반과 16C 후반에 사용된 구성법의 일면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구성법은 동시대 다른 출토복식에서도 확인되므로 향후 조선시대 포제 구성법 전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이주영 (2008). 여산송씨 일가 묘 출토 직령교입식 남자 포의 조형 특성. *服飾*, 58(9).
- 2) 이은주·조효숙·하명은 (2005). *길김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pp. 68-89.
-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284-285, 322-323.
- 송미경 (2007). 김화(金煥)합장묘 출토복식 연구. *김화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편, pp. 185-210.
- 홍나영 (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服飾*, 58(5), pp. 128-131.
- 3) 한국의복구성과 서양의복구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검토해 본 결과, 포의 겉설파가장자리선·안설파가장자리선·옆선·도련·수구의 부위를 통칭할만한 적절한 구성학적 용어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위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편의상 '가장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 포의 옆선에 달린 별도의 천을 '무'라 하고, 형태에 따라 단령·직령·답호·도포형직령의 옆선에 달린 사각형의 천을 '사각형무', 액주름·장의·창의·중지막·주의 옆선에 달린 삼각형의 천을 '삼각형무'라고 칭하고자 한다.
- 5) <표 2>에서 <표 8>의 항목 중 '보고서 유물번호'는 2007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묘주별로 정한 유물 번호이다(대전광역시·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 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 한국전통복식연구소편, pp. 223-347).
- 6) 옆선이 위쪽 가장자리에서 1.5cm, 9cm 정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체트임으로 보았다.
- 7) 구남옥 (2008).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바느질기법에 대한 연구 I. *服飾*, 58(8), pp. 126-127.
- 8)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편, p. 163.
- 9) *위의 책*, p. 131, p. 163.
- 10) 송미경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심수륜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편, p. 145.
- 11) 송미경 (2007). *앞의 논문*, p. 172, p. 181, p. 185.